

## 광역 클러스터 구축 기술교류 통해 '윈윈'

호남, 상생이 미래다  
민선 6기  
광주일보의 제안

### <3부> 성장동력 함께 키우자

- ① 자동차 산업
- ② 문화콘텐츠 산업
- ③ 산업의 융·복합화

최근 전남도가 자동차 튜닝산업에 오는 2018년까지 1660억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와 전남·북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게 됐다.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과 전남의 '자동차 튜닝산업', 전북의 '미래그린상용차 부품 기술개발사업'은 각 지자체가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을 광역권으로 묶어 '호남을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만들자'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연산 62만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클린디젤엔진을 기반으로 한 디젤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과 특장 차량의 기반시설 확보 및 개발판매, 밴 등 일반 차량과는 특화된 차량 생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SUV 차량을 주로 생산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실정에 맞춘 SUV용 전복시험시설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된 자동차 산업시설을 갖추는 중이다.

전남은 우선 2016년까지 국비와 도비 786억원을 투입해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0억원을 투입, 프리미엄급 외제차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과 부품 출시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384억원을 투입,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튜닝부품 시험평가 장비 구축, 기준 개발, 튜닝지원관 설립 등 개별 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세계적 상용차부품산업의 중심

산업화에서 소외된 호남은 뒤늦게 산업 기반을 마련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광주의 자동차·가전, 전남의 석유화학·철강·조선, 전북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기존 산업들은 환율 하락, 중국 등의 소비 부진 등 세계시장 상황에 밀릴까 연관되면서 언제든 침체 또는 이전, 생산 감축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래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신 산업 개척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남 내 교류·협력을 통한 기존 산업의 융합 및 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호남 문화콘텐츠의 재발견을 통한 산업화 등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광주, 100만대 생산 전남, 차 튜닝 산업 전북, 상용차로 특화 협력업체 상생구도로

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전주의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과 군산의 타타대우 상용차, 한국GM 승용차 공장을 갖춘 전북은 전국 중대형 상용차(2.5t 이상 차량) 생산량의 94%를 차지한다. 지난해 차량 생산량은 21만7000여대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공통 분모를 둔 제 사업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산업 주체를 광역클러스터로 묶는다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은 전북에서, 생산은 광주에서, 완성차의 마무리는 전남에서 하는 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생을 위한 광주와 전남·북의 협력은 구체화 된 적이 없다.

미래그린상용차부품사업을 추진중인 전북자동차기술원 관계자는 "광주와 전북 간 자동차산업 관련 협력사업들이 수 차례 있었으나 성공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쌀개방 분노 ... 불타는 농심

농민들 규탄집회 열어 대정부 투쟁 선언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쌀산업 대책 촉구

전남지역 시장·군수와 도의회,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쌀시장 개방 정책에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쌀 시장 개방 입장과 쌀 산업 발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농업인들의 불만을 없애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기반 유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농가 소득안정

을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가격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쌀 생산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혁신 등 내실있는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정부는 최근 식량 주권 포기 and 식량 참사라는 격렬한 저항에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위한 관세화를

선언했다"며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300여명은 21일 광주역 앞에서 '정부의 7·17 쌀 관세화 발표 규탄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23일 영광 지역을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논을 갈아엎는 등 대정부 투쟁을 전

개하기로 했다. 농민들은 이날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박근혜 정부 퇴진 ▲협상 포기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농업 포기 한·중 FTA 협상 즉각 종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가져온 쌀을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투척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력투쟁" 전국농민회 광주·전남 연맹 소속 농민 300여명은 21일 광주역 앞에서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 정부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폭염주의보

광주 등 오늘 33도 넘어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곡성·구례·화순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은 이날도 곡성의 낮 최고기온이 33.4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한 광주 33도, 화순 33.1도, 구례 33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인 24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

## 광주, 도시지역 면적 비율 95.8% 전국 최대

### 전남, 자연환경보전지역 3968km<sup>2</sup>로 가장 넓어

광주는 도시지역이, 전남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이 전국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숫자로 보는 2013 도시계획 현황 통계(전국 각 지역별 용도지역 지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의 전체 면적 501km<sup>2</sup> 중 도시지역 면적은 480km<sup>2</sup>로, 도시지역

면적비율이 95.8%에 이르렀다.

이는 특별시인 서울시(100%)를 제외하곤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국 도시지역 평균은 16.6%에 불과하다. 제2의 도시로 꼽히는 부산의 도시지역 비율도 94.7%에 머물고 있으며, 대전 91.7%, 대구 90.4%, 울산 65.9%, 인천 50.3%순이었다. 전남의 도시지역 면적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전남은 대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면적은 물론 비율도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자연

환경보전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3968km<sup>2</sup>로 조사됐으며, 전체 면적 대비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도 25.8%로 전국 최대였다.

면적은 전남에 이어 경남(1947km<sup>2</sup>), 강원(1722km<sup>2</sup>), 경북(1138km<sup>2</sup>) 등의 순이었다. 비율은 제주 18.8%(386km<sup>2</sup>), 경남(16.6%, 1947km<sup>2</sup>), 충북(11.3%, 836km<sup>2</sup>) 등의 순으로 높았다. 광주는 인천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체가 없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상 전국 도의 면적은 10만6106km<sup>2</sup>로 집계됐다. 용도지역상 국토 면적은 매립 작업이 진행

중인 간척지 등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행정구역상 국토 면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이 4만 9403km<sup>2</sup>(46.6%), 관리지역 2만7093km<sup>2</sup>(25.5%), 도시지역 1만7593km<sup>2</sup>(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017km<sup>2</sup>(11.3%)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독거노인 무료개안  
수술을 위한 자선기부  
8월 4일(월)~5일(화) 062)605-1128  
광신대학교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삼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부광기 표준 연비 및 용량 • C200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4.1km/ℓ, 고속도로연비: 10.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44g/km • C200 Avantgardi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4.1km/ℓ, 고속도로연비: 10.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44g/km • C220 BlueTEC Avantgardi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4.1km/ℓ, 고속도로연비: 10.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11g/km • C220 BlueTEC Avantgardi with Powermatic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4.1km/ℓ, 고속도로연비: 10.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11g/km • C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4.1km/ℓ, 고속도로연비: 10.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11g/km • C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4.1km/ℓ, 고속도로연비: 10.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11g/km • C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4.1km/ℓ, 고속도로연비: 10.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제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